

테마칼럼

생명과학

여성과학

교단일기

스토리텔링 파워



정창권

세계는 지금 이야기 전쟁 중

21세기는 스토리텔링 시대, 곧 이야기 산업의 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에선 좋은 이야기 자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는냐에 따라 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

테일러 목사는 처음 목사로 부임하여 마을을 돌아보던 도중 모든 집들이 역사 가 있으며,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도 역시 만화나 소설 등 원작(이야기)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일본은 만화를 하나의 예술로 보고 언제 어디서 누구나 즐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못된 사회 인식이 만연해 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다른 나라에서 이야기 자원을 수입 하다 쓰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본의 만화, 소설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종교칼럼



서달원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

칸을 나눠 만든 임시숙소에서 3박4일을 지냈는데 날씨는 후텁지근하고 여러모로 불편했을 텐데 이런 일정을 매년 여름마다 27년 동안이나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은 '놀람'의 차원을 넘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하였습니니다.

지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에게 라면 끓여 달라고 해서 먹고, 손자 같은 아이를 더울까 에어컨 틀어주셨는데 온도가 낮았던지 추워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불 속에 들어가 있다 잠들었다고... 어른들보다도 아무 거리낌없이 친해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서 배우는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기고

농수산물시장으로 가족나들이 해 보세요



김영태

또 참여하는 직원들 역시 '우리 도매시장은 우리가 만든다'라는 슬로건 아래 환경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뜻 깊은 행사로 생각하여 폭염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 및 판매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도입하였고 소비자의 호응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및 일반인의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봉사기회를 제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과 경제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경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토록 하고, 시민의 건강을 목록히 지키는 도매시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향토음식 육성 '푸드 투어리즘' 활성화했으면

일본에는 '식러(食旅)'라는 말이 있다. 음식 하나만으로도 여행객이 찾아오고 그 음식 하나가 곧 관광 상품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 농촌 지역에도 이미 치즈 체험, 낙농 체험, 장담그기 체험 등 여러 가지가 개발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은 미미한 상태이다. 전남·북 농촌관광이 성공하려면 불거리, 먹거리, 체험할 거리는 기본이고 알뜰거리, 놀거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전통의 맛을 이어 갈 수 있는 엄격한 식재료의 사용과 대물림해 온 조리법을 체계화하고, 향토 음식의 앞에 붙는 지역 명칭은 지리표시제제를 통한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전주 비빔밥, 남원 추어탕, 광양 불고기처럼 지역 명칭이 붙는 향토 음식을 더 육성하고 홍보해서 푸드 투어리즘이 농촌을 중심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해본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심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무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위기의 우리 사회 'DJ 정신'으로 극복해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년이 지났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 가치 발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 여려 과제를 남겼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족 화해, 동서화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년이 지났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평생 가치 발길을 걸었던 김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그 여려 과제를 남겼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원하고 노력했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민족 화해, 동서화합,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서민복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참사 부르는 화물차 불법주차, 뒷집 진 당국

광주의 도심 도로에서 불법 주차차 된 화물차를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올 들어서만 3건에 모두 5명이 같은 사고로 숨졌음에도 광주시와 각 구청의 불법 주차차 단속은 일회성에 그쳐 사실상 수고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도로에서 불법 주차된 5t 크레인 차량을 1t 화물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숨졌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당국의 안전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다. 광주시와 각 구청은 지난 3월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자 집중 단속을 했지만 사실상 일회성에 그쳤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光州日報) featuring 'The Kwangju Ilbo' logo, subscription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無等鼓

침뜸의 대가 구당 김남수옹은 1915년 광주시 광산구 하남면에서 태어났다. 요즘으로 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으로 하남지구 일대가 옛자리다.

구당이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했다고 한다. 서울시로부터 침사(鍼師) 자격정치 처분을 당해 활동을 중단한 후 3년만이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은 구당을 뜬 전문가로 초청해 의학과문지도 맡았다.

조국 버리기



이들이 조국을 등진 이유는 기득권층다. (이익집단)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정 부가 나몰라라 한 탓이 크다. 덩샤오핑은 '흑묘백묘(黑猫白猫)'으로 오늘날 중국 야심가들이 붙는 '보양방'이다.

안현수는 2006년 토리 노블림픽 3관왕과 세 계선수권 5연패를 달성한 세계 쇼트트랙의 1인자였다. 하지만 과범 논란에 휩싸였고 대표팀에서도 탈락하는 아픔을 겪었다.